



원리를 깨닫는 과학교육

글_ 김인순 전자신문 컴퓨터산업부 기자 insoon@etnews.co.kr

부터 오는 햇빛은 여러 가지 파장의 빛으로 이뤄져있다. 이 햇빛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색깔들로 빨강, 주홍, 노랑, 초록, 파랑, 남색, 보라색으로 이루어져 있다. 공기의 대부분은 산소와 질소로 돼있고 파장이 긴 붉은 계통의 색보다 파장이 짧은 보라색, 푸른색이 잘 산란된다. 이 때문에 사방에서 산란된 푸른빛을 볼 수 있어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이다.

과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과학자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코너도 있다. 과학자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과학자들의 생활 방법과 생각의 구조 등을 알 수 있다. 조사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이 들을 과학자의 길로 이끈다. 또 조금은 엉뚱한 생각도 과학의 원리를 생각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.

원리과학 인물 사전 코너에서는 노벨상을 만든 노벨에서부터 아인슈타인, 황우석 교수 등 과학계의 거장들을 만날 수 있다. 다이내마이트 사업으로 부자가 된 노벨은 과학의 진보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면서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에 유산을 기부했다. 이후 왕립과학아카데미는 1901년부터 노벨상을 수여했던 것이다.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인연이 된 체세포 성과를 주제로 황우석 교수의 어린 시절과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과정도 소개돼 눈길을 끈다.

어린이 동화세상에서는 아이들의 정서에 맞게 다시 제작된 동화들이 e-북으로 담겨있다. 또 잘못된 유형별로 책 읽는 방법을 지도한 '우리 아이 독서 지도'와 책을 읽는 바른 방법을 소개한 '책과의 첫 만남', 좋은 책을 추천해주는 코너까지 마련됐다.

아이들의 질문에 차근차근 대답하며 독서지도까지 할 수 있는 이 사이트를 통해 알찬 방향을 꾸려보길 기대한다.

아이들이 가끔 이런 저런 과학에 대한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할 때마다 부모들은 당황하기 일쑤다. 생활에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던 내용에 대해 아이들이 그 정확한 원리를 캐어물으며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. 그럴 때 해답을 주는 사이트가 있다. 바로 두산동아가 만든 원리과학 블로그(http://blog.naver.com/sciencekids.do)이다.

원리과학 블로그는 과학이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원리를 이해하면서 과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준다. 특히 과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꾸며졌다. 그래서 이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과학적 지식을 그냥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하는 방법과 과학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는 것이다.

이 사이트에서는 원리를 깨닫는 과학 교육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다. 무료 e북보기 코너에서는 "피는 왜 빨갈까?"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. 마치 진짜 책을 넘기는 듯 상세한 그림과 함께 심장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 피는 적혈구와 백혈구, 혈장, 혈소판으로 구성돼 있으며, 이중 빨간색인 적혈구로 인해 피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다.

신기한 과학나라 코너에서 역시 또다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. 하늘은 왜 파란색일까에 대한 대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. 태양으로



글쓴이는 숭실대 정보통신공학과 졸업 후 한국전자신문을 거쳐 2001년 이후 전자신문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다.